



최현배선생의 옥중 詩 지금도 머릿속에 맴돌아

감

자바위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난 나는 강원도 안협(安峽)이 고향이다.

그곳은 지명의 이름 그대로 지세가 낮고 삼태기 안처럼 아늑해서 서울에서 벗어나기가 꽃을 피우면 곧바로 따라서 피기 시작하는 곳이다.

그리고 철원에서 서북으로 32km 되는 지점이며, 임진강이 흐르고 보통학교 교정에는 천년 묵은 은행나무가 서 있는 곳이다.

월남하기 반년 전에 닭이 우는데 정상적인 수탉의 울음소리가 아니어서 슬그머니 문을 열고 보니 암탉이 울고 있지 않은가.

어른들이 하는 말씀이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고 하였다.

그렇다. 이 집을 버리고 집안 식구 모두가 야만도주할 것이니 망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라.

그런데 암탉이 반년 전에 어떻게 알고 있던 말인가. 참으로 불가사의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니 나는 한치 앞을 모르는 촌담만도 못한 인생이라.

고유글자를 가진 나라 56국과 문자의 형성과정

전 세계 국가 중에서 고유의 글자를 가진 나라는 56개국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자기나라 문자가 없다. 그렇기에 우리는 궁지를 가질만 하다. 더구나 우리 한글은 지구상 모든 나라 가운데서 가장 높은 단계인 음소문자이니 더욱 자랑스럽지 않은가.

한글은 사람이 말하는 그대로 표현하게 만든 글꼴이다. 대개 문자의 형성 과정을 보면 기억방조, 회화문자, 상형문자, 음절문자, 뜻글자, 음소문자로 만들어 지는데 한글은 가장 수준높은 음소문자여서 선진국의 언어학자들도 놀라고 있다. 그리고 한글은 자음 14자, 모음 10자 초성용복자 5자, 복모음 11자, 받침용 복자음 15자 등 모두 55자인데 이로써 구성될 수 있는 글자는 엄청나게 많지만 보통으로 쓰는 글자는 2,500자이고, 컴퓨터 작업에도 궁합이 잘 맞는다.

손재간이 글꼴에 접목이 되니

강원도 철원 촌놈인 내가 천우신조로 한



자와 한글의 활자서체 개발에 숨씨를 가진 것은 참으로 천만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나에게 천우신조의 기회를 안겨준 한글의 위대함을 찬양한다. 촌답만도 못한 인생이 서체개발의 거인이 된 것이다. 나로서는 윈도를 이용한 활자 서체 조각 자모로 최초 개발자로 선택된 것은 보람 있는 일이었다.

국정교과서(주)가 건립된 유래

광복절에 옥고에서 풀려나신 최현배 선생은 바로 문교부 편수국장으로 임명되었다. 그리고 이홍용(일명 이림풍) 선생을 유네스코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재단에 보냈다. 국정교과서 공장 건립에 필요한

선생의 주도 아래 공장이 설립되었고, 나 또한 그분에게 인정된 바 있어서 글꼴 개발인으로 정상에 오르게 된 것이다.

중앙일보 창립과 한국일보 회재

1965년 9월 22일은 중앙일보사의 창간일이다. 내가 자모공장을 차린 지 4년이 되었을 무렵으로 윈도와 자판(바탕)이 제대로 구비되지 않았을 때이다. 자모공장이라고는 했지만 겨우 걸음마 상태여서 주문이 많아도 감당하기 어려울 때였다.

신문사를 발족하려면 활자 자모를 최소한 5만종은 확보하고 준비하여야 한다. 65년 봄에 중앙일보사가 발족하면서 활자 주문 의뢰가 들어왔다. 그때 일을 생각하

이 ‘국보’라고 추켜세웠던 말이 생각난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자모 영업을 하기에 는 국토가 좁았다.

그리고 영업술이 부족하여 부채도 많았다. 결국은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 윈도도 팔아 치우는 물론 기계 5대 중 2대를 팔고 급기야 공장장에게 공장을 넘겨주었다. 그리고는 윈도 작업에만 매달리기로 영업 방침을 바꾸었다.

국위 선양의 표식이어라

문교부 편수국장 최현배 선생의 이야기를 하고 싶다.

그분이 옥고를 치를 때 왜경의 고문이 얼마나 혹독하고 심했는지 동국대 앞에서 왼쪽으로 난 계단으로 올라가면서 보이는 그의 흉상에 옥중에서 쓴 시를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남이어 못 살겠네임 그리워 못 살겠소
님 떠난 그날부터 겪는 이 설움이라
남이어 어서 오소서 기다리다 애턱오”**

최현배 선생은 또한 두 번째 감옥살이의 고통을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용원경찰서에서 1년 동안 비행기를 타고 기절하였고, 물을 먹고 깨물어지기도 했으며, 목총으로 머리를 맞아 유향이 낭자하였고, 곤장을 맞아 등과 궁둥이가 터졌으며, 발길로 종이를 채이고 쇠꼬챙이로 전신을 쑤서 상이게 되니 40도의 신열까지 났다.’

이제 한글 글꼴개발은 컴퓨터를 이용해 보다 아름다운 글자가 보다 손쉽게 태어나고 있다. 그리고 컴퓨터의 등장으로 인해 내 설자리 역시 크게 위축이 되었다.

내가 이 글을 쓰는 것은 컴퓨터의 등장으로 인해 잃은 일자리를 닷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손쉬운 작업 방법으로 인해 보다 많은 글꼴이 개발되고 있다지만 어려운 시절, 한글과 활자조각을 지키기 위한 많은 희생을 기억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글을 마칠까 한다.



보조금을 받을 목적으로 교섭위원으로 파견하였던 것이다. 국민학교 아동 교과서용 서체개발이 명분이었다. 10만 달러 원조 기금이 전쟁 직후에 승인된 것이다. 그 사용 권리는 문교서적주식회사에 주어졌다.

이를 위해 일본으로부터 인쇄기계 한 대가 수입됨과 동시에 대방동에는 인쇄공장 건물이 세워졌다. 그 설계와 감독은 캐나다인 로즈웰씨가 도맡아 하였다. 그분의 인솔로 문교서적위원 2인과 이림풍씨와 본인 등 4인이 일본에 파견되어서 기계 조작법과 윈도 기계 조작법 등을 연수받았다.

1954년 4월에 돌아와서 연말까지 기계 설치가 끝나고 작업에 착수했다. 최현배

면 의욕만은 의기충천할 때였다. 마침 한 자 활자 종자가 일본에서 수입한 물건이 있었다.

그래서 한문 제목 자모는 전태자모 2만 종, 그 외의 것은 조각 자모로 우리나라 최초이자 마지막으로 전량 제조 납품하였다. 그렇게 해서 1965년 9월 20일까지 자모 5만종을 전량 제조 납품한 일이 있었다.

1968년에는 한국일보사에 화재가 발생하였다. 인명피해도 있었고, 상당량의 자모가 손실되었다.

그 때에는 자모 윈도와 바탕이 거의 갖추어져 있을 때이다. 두 곳의 공장을 동원하여 단시일에 소실(燒失)된 자모를 보완하게 되었다. 그런 나를 두고 장기영 사장